

### 공동체 소식

#### ☐ 목주기도 성월/전교의 달

10월은 목주기도 성월이며 전교의 달입니다. 목주기도를 매일 바쳐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의무임을 기억합시다.

#### ☐ 전례부 회합

13일(일) 오후 1시 나자렛관

#### ☐ 낙태 반대 서명운동

- 본당입구 게시판에 준비된 카드를 작성하여 총무에게 주시면 모아서 발송합니다.

#### ☐ 전교주일(World Mission Sunday) 2차헌금

- 20일(일) 전교주일 2차 헌금 있습니다.

#### ☐ 구역모임 안내

- \* 구역반장 회의 : **13일(일) 1시** 나자렛 교육관
- \* 4구역 2반 : **19(토) 7시**, 김동술 세레자 요한 가정  
5307 W 159th ter, OP KS
- \* 4구역 1반 : **25(금) 7시**, 김병철 베네딕도 가정  
15304 Foster st, OP KS
- \* 3구역 : **26(토) 7시**, 감영진 라파엘 가정  
9315 W 150th st, OP KS

#### ☐ 주일학교 안내

- **매주일 오전 10시 나자렛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 주일학교 자리는 해설대 쪽 앞 1열~4열까지입니다.
- 목주기도 성월을 맞아 목주기도를 배웁시다.

#### ☐ 전례 상식

- 주일에 타지역에 있는 경우 해당 지역 성당(한인/미국)에서 주일미사에 꼭 참례하시기 바랍니다.
- 주일미사 참례를 못할 경우 고해성사를 하시고 영성체 하셔야 합니다.
- 전례봉사자는 미사 참례전 고해성사로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주일헌금은 자선행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무엇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일주일간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에 다시 내가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 행위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 성당의 중심은 제대입니다. 제대 앞을 지나갈때는 깊은 절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 ☐ 전례 성가

	입 당	예 물	성 체	파 견
금 주	31	54	168	44
차 주	450	212	174	63

####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명은(안젤라)	홍순익(마르티노) 최은미(아네스)
차 주	김시연(엘리사벳)	차호섭(요셉) 조지연(마리아)

#### ☐ 주일미사 복사

	향복사	시종복사
금 주	차민서(임마누엘)	김정빈(바오로) 김정원(안젤라)
차 주	정예찬(미카엘)	김정훈(로베르또) 김지안(요한)

#### ☐ 헌금 봉사자

금 주	홍순익(마르티노), 차상욱(펠릭스)
차 주	김태중(예레미야), 김동술(요한)

#### ☐ 애찬 봉사자

금 주	6조: 문문주, 장유정, 김희진
차 주	7조: 김경희, 김인자, 안혜진

#### ☐ 미사 후 뒷정리에 함께 하는 아름다운 손을 하느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 매월 첫 주일 성당 지하 청소합니다.
- 매 주일미사 후 간단하게 뒷정리 합니다.
- 청소 담당은 편의상 구역을 나눴을뿐 많은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목 요 일: 10:00 AM  
첫 토요일: 10:00 AM  
(신심미사)

####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 +예비신자교리

주일 10:00 AM

#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www.kckcatholic.org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korean1481@gmail.com

회 장 고영방 스테파노  
(913) 227-9040

총 무 박태주 로마노  
(610) 212-9539

유아세례: 전례부에 신청

주일학교: 주일오전10시  
나자렛관 (8월 25일)



###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28주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현세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의 샘이시니, 육신의 건강만을 찾지 마시다. 이 거룩한 날 모두가 하느님 아버지께 돌아와 믿음을 주신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며,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구원하심을 깨닫고, 그 구원의 증인이 되게 해주시기를 청합시다.

### 그림 묵상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열 사람이 그분께 마주 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루카 17, 12-14

제 1 독 서 : 열왕기 하권의 말씀입니다. 5,14-17

<나아만은 하느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가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하였다.>

화 답 송 :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2서 말씀입니다. 2,8-13

<우리가 견디어 내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모든 일에 감사하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이다.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7,11-19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 생명의 말씀 구원받을 마음자세, 찬양과 감사!



“악성 피부병에 걸린 병자는 옷을 찢어 입고 머리를 푼다. 그리고 콧수염을 가리고 ‘부정한 사람시오’, ‘부정한 사람시오’ 하고 외친다. 병이 남아 있는 한 그는 부정하다. 그는 부정한 사람이므로, 진영 밖에 자리를 잡고 혼자 살아야 한다.”(레위 13,45-46)

때문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던 나병환자 열 사람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율법에 따라 나병환자들에게 몸이 정결하게 되었음을 사제들에게 가서 보여주도록 지시하십니다(레위 14,1-32 참조). 절망이 얼마나 깊었는지, 사이가 좋지 않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이 함께 다닐 정도로 연민의 마음이 일으켜졌나 봅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덩달아 뛰어갑니다. 그들은 사제들에게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즉시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루카 17,14-16 참조).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한 사람은 누구라도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하느님께 대한 감사를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미와 감사를 드린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순박하고 고상한 인품의 사람이 이제 믿음을 얻게 되었으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좋은 땅을 만나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땅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써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루카 8,15)라고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좋은 땅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과연 지고하신 하느님의 현현(顯現)이시며,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이 모든 사실이 치유된 사마리아 사람이 드린 감사와 경배를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선포의 여정이 예감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의 아들이 아닌 외국인으로서는, 하느님께 어떠한 권리도 감히 주장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것을 하느님 은혜의 선물로 여기고,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감사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인 자기네들에게 하느님의 선물은 받아 마땅한 것으로 당연히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에게는 자격이나 권리가 있다고 그

렇게 믿고 있었나 봅니다. 구원을 받을 마음자세가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외국인에게는 구원에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즉, 감사, 찬미, 하느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자격 없고, 부족하고, 가련한 존재인지에 대한 자각이 있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외국인에게도, 죄인에게도. 그렇지만 구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하느님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박일 알렉산델 신부 | 반포1동성당 주임

##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무엇이 인간을 거룩하게 만드는가. 하느님의 은총일 것이다.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가. 인간의 부족함일 것이다.

무엇이 인간을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일 것이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루카 17,19)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 말씀의 이삭

# 사소함에 대한 행복

얼마 전 한 달 동안 병원 침대에 누워 본 적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한 달이라고 말할 때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두 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참으로 기특한 말이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입니다. 다리와 머리도 다칠 수 있는 사고였는데, 허리만 다쳤을 뿐 다른 곳은 무사하기 때문에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이렇게 너그러운 인간이 아닌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들뜬 같아졌습니다. 이기적이고 위선으로 가득 찬 제가 너무 공손해져서 하느님도 웃으셨을 겁니다. 전 늘 비우고 또 비운다고 말했지만, 탐욕에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하느님이 다시 제 마음을 개혁하라고 한 달 동안 누워있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 개혁은 성공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돌이 된 아기가 되어 기는 것, 앉는 것, 서는 것, 걷는 일을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일흔일곱에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앉는 일, 서는 일, 걷는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런 것쯤은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라고, 그 정도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왜 그것이 축복인지는 부끄럽지만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걸으면서 푸른 하늘을 보는 일, 나무에 앉은 새를 보는 일, 걸으면서 참아내려는 울음같이 붉은 노을을 보는 일은 눈물겹도록 그리운 것이었습니다. 모두 주님이 무상으로 주신 선물이니까요.

‘괴테’의 행복의 다섯 가지 원칙은 나를 실망하게 했었습니다. 적어도 괴테라면 철학적이고 더 명상적이어야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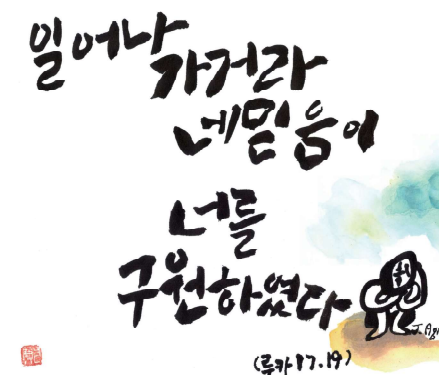
다고 건방을 떨었지요. 첫째, 지난 일에 연연하지 않기. 둘째, 미워하지 않기. 셋째, 사소한 일에 화를 내지 않기. 넷째, 현재를 즐길 것. 다섯째, 내일은 신에게 맡길 것이었습니다. 나도 다 아는 일이라고 건방을 떨었는데 저는 늘 지난 일을 가지고 안절부절하고, 남을 미워하고 화를 잘 내며, 내일을 완전히 하느님께 맡기지 않고, 이상이나 꿈이라는 이름으로 내일을 내 식으로 조각하곤 했습니다. 그 다섯 가지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사소한 일을 행하는 자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소함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역시 그 이름에 답하는 문호라는 것을 몸을 다치고 알았던 것입니다. 어리석음은 끝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지, 왜 목주기도를 그치지 않는지 가슴을 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겸손이 얼마나 같까요. 제 나이를 보면 이 정도는 깨달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설픈 몸이지만 그치지 않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과 대화하는 이 무량의 시간이 황홀할 만큼 행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나의 통증이며, 주님을 찬미하여라.”

신달자 엘리사벳 | 시인

## 복음묵상



캘리그래피 정승원 아녜스